

총성도 규칙도 없다...어둠 속 치열한 정보전

사이버전의 은밀한 역사

프레드 캐플런 지음, 김상문 옮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이 컴퓨터에 의해 또는 컴퓨터를 통해 통제되기 시작했다. 스마트팜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수문을 조절하는 댐의 통제 밸브, 은행의 금융 거래, 자동차 내부의 제어장치나 항공항승기, 도난경보기, 심지어 토스터기까지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해킹한다는 것은 곧 스파이나 사이버 전투원에게 원심분리기나 댐, 은행 기록 등을 제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설정을 바꾸거나 느리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으며,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가상 공간이 아닌 공중을 비롯해 지상, 해상, 우주와 같은 '하나의 전장 영역'으로 인식된다.

NSA(국가안보국)을 발전시켜왔는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에 맞서 방어와 수비를 수행해왔는지 들여다 본다. 저자는 100명이 넘는 관료인물들, 정부관료를 비롯해 군 장성, 국가안보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물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했다.

지금의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가상 공간이 아니다. 공중을 비롯해 지상, 해상, 우주와 같은 '하나의 전장 영역'으로 인식된다. 사이버전은 군인들뿐 아니라 일상에서 컴퓨터,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과 관련이 돼 있다.

사이버전은 지난 1990년 사막의 폭풍 작전부터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마이크 로웨이브 신호를 가로채 대지휘통제권을 승리로 이끌었다. 반대로 1998년 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인 문 라이트 메이즈 사건을 비롯해 중국 부대의 미국 주요 방산

업체, 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우리는 통제되지 않은 구역을 해매고 있다”는 말처럼 사이버전은 이미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나 그 주체나 작동방식을 알기 어려운데다 그것이 전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별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현실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전에서 공격과 방어는 어디까지일까? 어느 시점부터 공격행위가 성립되는 것일까? 외국의 적대세력 통신을 매개하는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합법적 일까? 또는 사이버전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저자가 던지는 물음은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진한 숙고를 요한다. <플래닛 미디어>2만2000원 /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국가가 위기다=각국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역사·문화적 배경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20개국, 유럽 21개국, 북미 2개국, 중남미 14개국, 아프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67개국 국가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이와함께 각 나라의 국가가 탄생한 배경과 작곡자·작사자, 국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등도 다룬다. <내일을여는책>1만6000원



▲실크 스타킹 한 켤레=영미 여성 작가 11인의 단편을 엮었다. 여성과 자연의 친연성이 남성적 문명에 위협받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 세라 오언 주위의 대표작으로 시작해 시대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여성의 욕망을 다룬 케이트 쇼팽,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다수 출간한 여성운동가 샬럿 퍼킨스 길먼 등 총 11명의 작가가 쓴 13편의 소설이 담겼다. <문학동네>1만4000원

사려를 곁들여 새로운 치료법과 함께 소개한다. <더퀘스트>1만7000원

▲너는 당신이 왜 우울한지 알고 있다=우울증, 불안장애 등 기분장애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수면장애, 기억장애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룬다. 뇌의 모든 문제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각각의 뇌 속에서 심각한 정도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질환들에 관해 뇌과학 연구와 생활 속

▲자연을 담은 엄마 요리=‘시골 엄마 밥’ (2013)의 개정판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재료로 만든 시골 엄마표 레시피북이다. 요리연구가 배명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채터리를 나눠 계절 재료로 만든 계절마다 챙겨 먹으면 좋을 204가지의 건강 음식을 소개한다. 또한 각 식재료에 담긴 영양이나 고르는 법, 손질법 등 요리 대선배 엄마가 귀뻐하는 정보도 풍부하다. <상상출판>1만5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어들을 치우는 사람들=“오늘도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했던 어둠은 우리가 모두 가져갑니다.” 그동안 몰랐던, 또는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그들이 아파트 단지, 학교, 거리, 좁은 골목 등을 청소하는 모습을 수채화풍 그림에 담았다. 스레기봉투에 담긴 위험한 물건, 술 취한 사람의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아침 풍경을 만드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노란상상>1만3000원

오른 아기 고추들은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을까. 작고 어린 존재들이 불의에 맞서 땀땀 땀땀 싸우는 모습은 강렬한 색채의 그림과 어우러져 힘찬 기운을 선사한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짱구네 고추밭 소동=권정생 작가의 아름다운 작품들 중에서도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다 익은 고추들을 훑쳐가는 도둑에 관한 소문이 돌던 짱구네 고추밭에서 어느 때보다 더욱 빨강게 달아

▲순둥이=김일광 작가가 실제로 키우던 개 순둥이 이야기다. 겁이 많고 순한 순둥이가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짖을 일이 없어 짓지 않은 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을 김일광 작가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담담히 풀어냈다. 아주 순박하고 편안한 얼굴과 적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는 강한 모습, 새끼를 보내야 하는 어미의 슬픈 표정을 읽는 이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한다. <봄봄출판사>9500원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다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

윤이나 지음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 음식은 만들 수 있다. 이 음식에 대해서만은 '자신만의' 레시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이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 나의 개인 취향은 '계란 없이, 국물 많이, 면은 꼬들꼬들'이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라면' 이야기다. 세계라면 협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5.1개로 세계 1위라고 한다. 놀라운 통계다. 세미콜론이 퍼내는 '뽕 시리즈'는 식탁 위에서 만나는 나만의 작은 세상을 테마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내는 기획이다. '뽕 시리즈' 아홉번째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는 바로 '국민음식' 라면에 대해 맛깔스럽게 풀어낸 책이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라면을 먹는다' 윤이나 작가는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기억해두었다가 꼭 먹어보는 일, 나만의 기준으로 엄선한 라면을 종류별로 떨어지지 않게 정여두는 일, 라면을 끓이는 방식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이론을 가지는 일, 기본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라면을 먹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다.

책은 '첫째, 라면을 끓이기 전'부터 '열두째, 계속 라면을 먹으려면'까지 라면을 끓이는 과정 순으로 구성돼 있다. 라면 종류 고르기, 물 끓이기, 물이 끓는 동안 할 일, 면과 수프를 넣는 순서, 마지막 팁까지 저자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는다면 적어도 1인분의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도록 썼다"고 말한다.

물론 라면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다. 그에 얽힌 많은 이들과의 추억, 즐거움, 때론 삶의 고단함도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은 라면 1인분을 끓이는 과정의 기록

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가장 맛있고 간편한 한 끼를 먹이는 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

책은 라면 끓이는 법과 달콤쌉쌀한 인생 이야기가 어우러져 그녀의 말처럼 '재미있고, 맛있게' 읽힌다. 그녀의 '라면 끓이기 방법'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별개다.

이번에 '뽕 시리즈' 열번째 책으로 중국 음식 '휘귀'를 다룬 '내가 사랑한 휘귀'이 함께 나왔다. '얼루어' 매거진 피쳐 디렉터 허운선이 쓴 책은 '물결 무리로 반반 나눠진 켈리안 냄비에 두 가지 육수를 선택하고 각종 야채와 고기 및 해산물을 담가 익혀 먹는 중국식 사브사브 휘귀에 대해 다채롭게 풀어낸다.

지금까지 '뽕 시리즈'로는 지금까지 조식(이다해), 해장음식(미강), 그리너리 푸(한은형), 프랑스식 자취 요리(이재호), 치즈(김민철), 고등어(고수리), 엄마 박완서의 추억(호원숙) 등이 출간됐다. 앞으로 병원의 밥, 바케트, 평양냉면, 치킨, 카레, 삼각김밥 등에 대한 책도 출간될 예정이다. <세미콜론>1만1200원 /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관내지점	문주지점
서대지점	운봉지점
문봉지점	상곡지점

자양지점	청양지점
자신지점	홍천지점
홍천지점	한양지점

관동지점	관동지점
관동지점	관동지점
관동지점	관동지점

매곡지점	매곡지점
매곡지점	매곡지점
매곡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첨단지점
첨단지점	첨단지점
첨단지점	첨단지점

운암지점	운암지점
운암지점	운암지점
운암지점	운암지점

동광지점	동광지점
동광지점	동광지점
동광지점	동광지점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